

최현의 산 이야기 <10> 가야산 2

경허·만공의 걸림 없는 선풍이 덕숭산에 영글다



가야산에서 멀리 남쪽으로 뻗은 선풍계. 오른쪽으로 뻗은 능선을 멀리 해미읍을 지나서해로 숨어들었다.

가야산(伽耶山)의 남쪽 끝자락에 봉긋이 솟아 있는 덕숭산(德崇山)은 가야산으로부터 독립된 산이 아니라 서로 맞붙어 있는 가야산에서 가지 천 산(支山)이다. 가야산 전체의 형상이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 용(龍)으로 볼 때 덕숭산은 용의 입에 물린 여의주(如意珠)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가야산의 수려한 기운은 덕숭산에 가장 많이 서려 있고 새하얀 바위와 아름드리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세 때문에 예부터 덕숭산을 호서(湖西)의 소금강(小金剛)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호서라 함은 호수의 서쪽으로, 삼국시대 최초의 저수지 중의 하나인 익산에 있었던 황등제(黃登堤)의 서쪽을 일컫는데, 지금의 충남의 서북지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듯 수려한 덕숭산의 중심 맥(脈)이 힘차게 뻗어 내려와 우뚝 멈춰 정기(精氣)를 갈무리한 곳에 수덕사(修德寺)가 자리 잡고 있다. 수덕사 터는 봉황이 동지에 내려앉은 형국(形局)인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의 명당이다. 봉황형의 명당에서는 성현(聖賢)이나 고관(高官)이 많이 나온다는데 수덕사는 성현을 낳고 기를 만한 큰 명당임에는 틀림없다. 근세에 들어 한국불교를 증흥시킨 경허 선사(鏡虛禪師)와 그의 제자 만공 선사(滿空禪師)가 주석(住錫)하셨던 도량(道場)이다.

경허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은 만공 선사의 문하(門下)에 많은 수행자들이 들어와 수행하였는데 이른바 덕숭문중(德崇門中)을 이루었다. 덕숭문중은 범어문중(梵魚門中)과 함께 많은 수행자를 배출한 한국불교의 양대 산맥이다. 그리고 만공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셨던 한암 스님과 더불어 근대 고승의 쌍벽을 이루었는데, 그

래서인지 파격적인 일화들이 많이 전한다. 한가지씩만 옮겨보면 일제시대 조선총독이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조선불교를 없애고 자 일본불교와 조선불교를 합쳐야 한다고 하자, 만공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청정본연(淸淨本然)하거늘 어찌 문득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나왔는가”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리고 한암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적의 도피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상원사를 불태우기 위해 상원사에 주석하는 스님들께 소개를 명명하였으나, 한암 스님은 부처님과 함께 소신하겠다고 버텨 지금의 상원사가 온전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개가 당찬 선승(禪僧)의 기질이 두 선사에게 모두 있었는데, 한암 스님이 곧고 높다면, 만공 스님은 걸리는데 없이 넓었다. 오대산 상원사가 경건한 기풍이라면, 수덕사는 호방한 기풍을 이어오고 있다.

수덕사는 백제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일설에는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에 백제에 불법을 전한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수덕사 절터를 발견했다고 하나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

고려 충렬왕 34년(1308년)에 지어진 대웅전이 700여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간결한 힘과 멋을 뽐내면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목조건축(木造建築)은 그 재료가 나무라서 전란(戰亂)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남아 있는 건축물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목조건축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鳳停寺) 극락전(極樂殿),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과 조사당(祖師堂), 강릉 객사문(客舍門) 등 남한에 5채가 있고, 북한에는 황해도 성불사(成佛寺) 응진전(應眞殿)과 심원사(心源寺) 보광전(寶光殿) 등 2채가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이 어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1937년 해체 수리할 때 “1308년에 기둥을 세우다”라는 목서명(墨書銘)이 발견되어 창건연대(創建年代)가 명확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1916년 해체 중수(重脩) 때 1376년에 중건(重建)되었다는 목서명이 발견되었고, 봉정사 극락전은 1971년 해체 수리할 때 대들보 위에 있는 중도리에 “능인(能仁) 대덕(大德)이 신라 때 창건 후 여섯 차례 중수했고, 1363년에 촉담 선사(竺曇禪師)가 다시 중수했다”라는 기문(記文)이 발견되었다.

마지막 중수 기록으로 볼 때는 봉정사 극락전이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13년 빠르다. 옛날에는 보통 100년 내지 150년 만에 건물을 보수할 사례에 비추어 보아 봉정사 극락전의 창건연대는 최소한 1263년이므로 1308년 창건된 수덕사 대웅전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건축은 봉정사 극락전인 셈이다.

건축 후 3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범박이 된 요즘의 집들과 700여 년이 지나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나무로 지은 집을 비교해 보면 인간에게는 사물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이이다.

■최현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봄이 왔다

-4월 어느 날, 하루 동안에 다가온 봄의 모습 하나 둘 셋-

하나. “안녕하세요! 저기 위에 사는데요. 아시죠? 기억하세요?” 기도원 처녀다. 3년째던가? 4년째던가? 아니, 더 됐지. 5년? 모르겠다. 하긴 알 필요도 없지. 기도원에 맡겨진 지 몇 년이나 됐는가를 알아서 무엇 할까? 겨울이 오면서 끊겼던 처녀의 외침이 다시 시작된 건 4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주민 여러분 저예요. 상주에서 왔어요. 다 잘들 계시죠? 여러분, 저 상주에서 왔는데 요. 아빠가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선 보이지도 않는 산 윗부분, 산정 가까운 곳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집들을 향해 외치던 그녀가 오늘은 등성을 타고 내 집 앞까지 내려와 인사를 한다. “예에...”

나는 측은 한 번 뒤돌아보며 답을 하는 것으로 그녀와의 만남을 맺는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떠들거나 말거나 봄바람으로 받아들이며 하던 일을 이어간다.

둘. 세 사람이 한 손엔 자루를 들고, 다른 손엔 약초깡이를 들고 발을 돌아다니며 밧인 가를 캐어 자루에 담는다. 밧집 포도밭을 훑고 내려오더니 우리 집 밧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작업을 계속한다. “뭘 캐는 겁니까?”

그 중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맘이란 것이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이으며 다가왔다

“민들레요.”
“약으로 쓰시게요?”
남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일행과 함께 깡이로 푹 푹 땅을 짚는다.
“띄엄띄엄 캐야 개들도 번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에, 작은 건 안 캐요.”
이제 우리 밧에선 그만 캐고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의미로 밧을 했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밧을 마구 밧으며 돌아다닌다. 매년 날이 따뜻

해지기 무섭게 두세 무리의 사람들이 나물을 캐러 온다. 그들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집 주위건 떨어진 밧이건 상관하지 않고 돌아다닌다. 정작 밧을 주인들은 남의 밧 출입을 쫓겨 하지 않는다. 어쩌다 들어갈 일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밧 주인을 양해를 구하는 일이 없다. 일을 하는 밧에까지 들어와 나물을 캐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먹을 나물조차 그들이 두 번 정도만 쓸고 가면 남아나질 않는다.

어떤 이는 도랑가에 만들어 놓은 미니리깡에서 미니리를 뜯어가기도 했다. 두름 밧의 두름을 따가는 사람도 있었다. ‘다 자란 걸 왜 안 따느냐’는 것이 두름을 따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래저래, 나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싫다.

한번은 나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긴 우리 집 밧이고 나물도 우리 집에서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흘기며 갔다. 기습 한구석이 특 내려앉았다. 가볍게 밧나들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물도 나누어 먹지 못하는 봄이 되고 말았는가? 맘이란 것이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이으며 다가왔다.

누가 어떻게 하든 놔두자고 마음먹었으나 오늘도 한 단 하고 말았다. 세 퍼프필 민들레마저 남김없이 캐가는 사람들이 영 보기 싫었다. 요 몇 년 새, 민들레를 고추장에 무쳐먹는 맛을 들었던 탓도 컸다.

어찌 됐든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에게 투덜대는 것을 보니 내게도 봄이 오긴 온 모양이다. 우리 밧을 벗어난 밧 밧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밧모습에도 봄은 불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픈 마음보다 푸르른 봄이 어디 있을까?

셋. 아들이 내릴 무렵이 되자 빗방울이 떨어진다. 방안에 들어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리가 아니다. 싸이 뜯는 듯이 비가 내린다. 아래서 위로, 솟아나는 소리다.

■유승도 (시인)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051) 515-8888
팩스: 508-0101 인터넷: 070-7425-0518

www.buddhashopping.com
* 36년 전통의 동진/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달력 카달로그는 매년 8~9월에 우편발송합니다.

☛ 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바림달라등 30cm	바림등 (6cm) @2,600원(80개이상)	바림등 (8cm) @3,300원(96개이상)	바림등 (10.5cm) @5,500원(24개이상)	바림등 (13cm) @13,000원(12개이상)	바림등 (20cm) @35,000원(4개이상)	바림달라등 (6,8,10,5,13,20,30cm)				
비단접등 12cm	공단등 (6cm) @2,400원(80개이상)	공단등 (8cm) @3,000원(96개이상)	공단등 (10.5cm) @5,000원(24개이상)	공단등 (13cm) @12,000원(12개이상)	공단등 (20cm) @30,000원(4개이상)	공단달라등 (6,8,10,5,13,20,30cm)				
청사초롱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비단접등(12cm) @290,000원(100개)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3cm / 25cm / 30cm 50cm / 1m * 기타주문생산	연일 (일반) 5,000원(1묶음)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일반전구5W (국산) 38,000원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와까바향 (단) @11,000원 (10케이스 이상) 길이: 15cm	집게부착 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x21cm	불자수지독송 칼라병풍 @500원 (200개 이상) 크기: 60x21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방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외피로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외)
49,99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고급형 39,990원
→ 35,000원
[가로,세로 동일 × 높이(뒹뒹) 6cm]

나만의 힐링세계
기방
나만의 힐링세계
기방
나만의 힐링세계
기방